

# 지역환경문제 참여를 통한 환경의식 변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이현애 · 김종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 The Changes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the Formation of a Local Community through Participating in a Local Problem

Hyun-Ae Lee · Jong-Wook Kim\*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kind of effects a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on a local environmental problem has on th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 and on the local community. I (researcher) employ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on the residents' environmental movement, which claimed to preserve the Sung Mi Mountain from the Seoul City Hall's plan of the water reservoir construction. I tried to understand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participating actions, and also the changes and effects the participation brought at both a personal, and community level. The data were gathered by means of in-depth interview with the local residents and unstructured questionnaire.

At first, through the residents' environmental movement, the participants acquired a growth i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For example, they obtained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 change of attitude to environment, and participation function.

Secondly, it is meaningful that a local tie intervened by the environment, enforced self-governing, and shows how community sentiment plays an important role for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Moreover, the environmental movement contributed to developing a 'culture for participation'.

In conclusion, participating in a local environmental problem can be an integration of learning and practice and also leads to reflective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not only

---

\* 2004. 11. 15 접수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but also among human beings. In addition, it can buildup a systemic cooperation for local problem-solving and the ability to make an alternative culture in the community. These are the significances of the local environmental problem-participation o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Key words** : local environmental problem, participation, residents' environmental movement, environmental consciousness,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 I. 서론

본 연구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환경의식 변화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자 출발하였다. 비록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의 형태로 환경교육을 접한 것은 아니나, 주민자발적 노력에 의한 환경문제의 '참여' 과정은 환경에 관한 비형식적(nonformal), 무형식적(informal) 학습을 요구하는 하나의 '학습' 과정임을 전제할 수 있다(Clark, 1984; Heimlich, 1993). 특히 Forbes(1987)는 지역기반의 환경교육 프로젝트를 교과과정 모델로 제시하면서 지역구성원들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을 주요 학습과정으로 보았다. 이것은 메찌로우(1991)와 프레이리(1972)의 학습 관점과 관련되는데 비판적 성찰과 합리적 담론을 거쳐 실천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학습과 실천을 분리시키지 않는다(Gill, 1993 재인용). 따라서 현실적 필요와 자발적 동기 부여에 의한 환경문제 참여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의식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학습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한 지역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환경문제 참여과정을 기술하여 환경의식의 변화를 이해, 분석하고, 지역적 차원

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끼친 영향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나아가 학습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환경교육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지속 가능한 사회'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확장된 환경교육(최석진 외, 2002; Maser & Kirk, 1996; Reed & Loughran, 1987)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참여'는 환경교육에 있어 중요한 교육영역이지만, 학교와 교실 밖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조직화해 환경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으로서 보다는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더욱이 환경교육은 '환경운동'과 구별되기를 원한다<sup>1)</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을 성인의 학습과정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던 선행연구들(김진희, 2003; 나은희, 2003; 정유성, 1998; Gill, 1993)을 바탕으로 지역환경문제에의 참여가 환경교육에 있어 어떤 의미있는 학습과정인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환경문제 참여를 통한 학습과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기술하고 참여과정에서 드러난 학습자 행위기능과 참여를 통한 환경의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환경문제 참여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중심으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이루어

1) 환경운동은 운동의 대상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상태가 해결되면 소멸되지만 교육은 환경이나 환경문제가 아닌 인간 곧 아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멸될 수 없다는 교육과 운동의 근본적인 차별성에 기인한다(남상준, 1999).

어진 공동체 형성과정을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하며 그 외 질문지법과 관련문헌 조사를 병행하였다.

## II. 연구대상, 범위,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일대의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이다<sup>2)</sup>. 특히 주민자발적 참여와 노력으로 성미산을 지켜온 주민들의 환경운동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시발점이라 할 94년부터 2004년 6월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상으로 성산동, 망원동, 연남동, 서교동을 망라하는 지역이나 행정구역상의 구분보다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기초한 생활권 및 정서적 유대를 맺고 있는 성미산 일대의 마포구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의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두되, 그 배경과 결과로서의 지역 공동체 형성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인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참여 기능 변화를 학습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의 전개과정

#### 가. 주민운동의 배경과 참여동기

산이 성 같이 둘러 있어 우리 말로 '성메', '성미' 라고도 불렀다는 성미산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 1동에 위치한 약 3만여 평 되는 마포구 유일의 자연 숲이다. 그런데 지난 2001년 7월, 성미산 정상에의 소유자인 서울시와 그 외 2만여 평의 소유자인 H대학 재단이 각각 배수지와 아파트 건설 계획을 공지하자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며 대치하게 되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성산 배수지 계획은 마포구 7개 동의 지역급수를 전담하는 배수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요지역에 가까운 곳에 지역급수 전담 배수지를 설치해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을 배수지를 거쳐 가정용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는 직결급수 체계를

〈표 1〉 자료의 창출방법

연구 방법	연구내용	연구대상
문헌조사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방송보도자료, 계간지, 유인물, 중앙일간지, 내부회의 자료, 인터넷사이트, 기타 보고서
질문지법	지역환경문제 참여를 통한 환경의식변화와 지역사회에의 영향	성미산 일대 마포지역 주민
참여관찰	지역문화 및 문제해결방식과 의사소통, 학습네트워크	마을기관, 마을행사 및 회의 숲속학교
심층면담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의 맥락과 참여방법 문헌 및 설문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환경에 대한 가치, 태도 변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변화	지역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2) 연구자는 2003년 10월, 이 지역에서 설립추진 중인 도시형 대안학교를 위한 '주민추진위원회 해오름식'에 참석하면서 연구현장과 처음 만났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지역주민들과 대안학교 예비교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용 물탱크 부실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원인을 제거하고 단수의 횡수를 줄이고 시간대별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지금보다 좀 더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성미산 개발 이외의 대안적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성지연'<sup>3)</sup>의 이름으로 2년여간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성미산은 인근 마포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 운동장소, 아이들의 놀이터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일상적 삶의 공간이던 성미산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성미산을 이용해온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했다. 즉 배수지가 건설되고 아파트가 건립되면 상권이 형성돼 땅값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배드민턴, 에어로빅, 산책을 즐기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성미산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공동육아어린이집<sup>4)</sup> 교사와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침마다 나들이를 가는 곳이기에 성미산 개발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성미산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참여동기는 성미산을 이용해 왔던 각자의 맥락에서 그것이 사라짐으로 인한 '불편함'과 '아쉬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주민운동이 조직화되고 체계화 되는 과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개발의 논리'에 맞서기 위한 대의적인 명분으로 '환경의 보존'을 택하게 하였다. 비록 초기의 내적 참여동기와 겉으로 표방한 이유는 달랐지만 거기서부터 성미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의 변화 및 학습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성미산 개발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성미산에 관한 자료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성미산에는 붉은배새매와 같은 천연기념물 및 오색딱다구리와 같은 서울시 보호종과 다수의 목본, 초본 식물들이 서식하

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산배수지 건설방식의 문제점으로 자연유하식 배수지 건설방식이 갖는 반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대안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작 수혜자인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일을 '배수지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는 원론을 반복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니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일방적 행정절차이다.

#### 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 행위 기능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 속에는 다양한 환경친화적 행태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된 행위기능이다. 특히 연구현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법적, 정치적 행위나 설득뿐 아니라 숲속학교 및 성미산 캠프와 같은 교육적 전략을 통해 성미산을 알고 가꾸어 가고자 하는 노력을 더해갔다. 이것은 성미산 지키기가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단기적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가치, 태도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 성미산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집 가까이 산을 두고서도 와 본 적 없던 주민들도 많았다. 그러다가 성미산이 개발된다는 소식에 산이 없어지면 '자녀들이 도심에서 그나마 겨우 느끼고 지내는 자연을 잃어버릴까 바' 무작정 반대하며 참여한 주민들도 있다. 하지만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마련한 '생태교실' 같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성미산에 대해 느끼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 장기화되고 있는 주민운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Hungerford와 Peyton(1980)의 환경친화적 행태의 6가지 구성요소, 즉 환경쟁점 해결을 돕는 '학습자 행위기능'(Wike, 1993 ; 남상준, 1999 재인용)에 근거해 성미산지키기 주민운동에서 나타난 참여방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3)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 이하 성지연.

4) 공동 육아 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방법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연놀이와 나들이, 텃밭 가꾸기 등 생활의 모든 경험을 놀이로 접근하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 육아 어린이집의 주요한 교육 프로그램 장소인 성미산을 잃는다는 것에 부모와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표 2〉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에서 나타난 학습자 행위 기능

환경 쟁점 해결을 위한 학습자 행위 기능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에서 나타난 참여방법
소비자운동 (Consumerism)	생산자, 제조업자, 입법부,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경제력에 의존하는 소비자 운동차원의 행태	없음
생태관리 (Ecomanagement)	생태계의 유지·개선을 위해 벌이는 물리적 행위	성미산 가족나무 심기, 생태 모니터링
설득 (Persuasion)	긍정적 환경행태를 하도록 상대방을 말로써 동기 유발하는 노력	주민회의, 주민서명운동, 공청회
법적행위 (Legal action)	쟁점해결을 위한 법적 체계를 활용하는 행위	마포구청, 시청 등 관련기관에 주민의견서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제출
정치적 행위 (Political action)	유권자, 입법부, 집행기관에 압력을 가해 환경에 우호적인 가치나 신념에 순응하도록 하는 행위	서울시장 및 마포구청장 주민합동 면담 추진, 시청앞 기자회견, 613 지방선거 후보 출마
상호작용 (Interaction)	위의 다섯 가지 행위 양식들이 두 가지 이상 조합된 것	숲속학교, 생태교실, 숲속음악회

1) 주민회의와 서명운동 : 쟁점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의 과정

성미산 개발에 대한 공론을 모으고 다른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차례의 주민회의와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의 ‘대화와 토론’은 성미산 개발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환경쟁점의 논리를 이해하는 학습과정이었다. 또한 이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을 갖게 했다. 더욱이 평소에는 잘 모르고,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주민들을 찾아가 성미산 얘기, 자녀들 얘기, 마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웃’이라는 관계성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후에 기술할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전초 역할을 하게 된다.

2) 숲속음악회, 촛불집회, 대보름맞이 주민행사 : 즐거운 참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미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성지연 주민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성미산의 개발 문제를 알리고 서명도 받기 위해 공동육아 어린이들

과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숲속음악회를 열었다. 문화행사를 통한 홍보와 서명은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마을 구성원들 모두의 즐거운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다가 주민들 몰래 서울시가 강행한 벌목 이후, 시청 앞에서 주민규탄 집회를 열고, 토요일마다 망원 지하철역에서 초등학생, 주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모여 촛불행진을 하기도 했다. 또한 주민 300여명과 함께 산 정상에서 ‘성미산 지키기 주민집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풍물패가 동네를 돌며 길놀이로 시작된 이 행사는 동네 어린아이들에게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는 세대적인 마을축제가 되었고, 성미산을 둘러싼 이슈를 많은 주민들로 공감케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3) 다양한 법적·정치적 행위 : 주민의식의 발로

마포구청과 환경부, 시청 등 관련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서명과 주민의견서 등을 제출 하였으나 성미산 개발 계획에 대한 서울시와 마포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해 성지연 주민들은 6·13 지방선거에 직접 후보를 내보내기도 했다.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지역주민들의 개발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구청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성미산 보존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 정치적 참여과정을 통해 주민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4) 숲속학교, 생태모니터링, 가족나무심기: 느끼고 배우고 가꾸는 자연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 있기 이전에는, 마을에 살면서도 성미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산’ 성미산에 배수지가 건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굳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데 관심이 없는 주민들도 많았다. 하지만 성미산에 올라 산책하고 쉬며 운동하기 위해 오르내린 사람들은 집 가까이 있는 작은 산을 잃고 싶어하지 않았다. 즉 ‘성미산’이라는 장소에서의 체험이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참여를 일으키는 중요한 내적 동기부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보다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성미산을 직접 느끼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숲속학교를 만들었다. 2003년 3월부터 토요일마다 진행된 숲속학교는 환경단체에서 하는 자연체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이지만 차이점이라면 항상 가까이 있는 동네의 작은 산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도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라기보다 동네에 살면서 성미산을 항상 보아왔고, 산의 생태에 관심이 있는 주부<sup>5)</sup>이다. 그렇게 시작된 숲속학교는 프로그램 담당자 외에 다른 주민들이 도우미로 계속 참여하면서 ‘함께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장’이 되었고 성미산에 대한 생태모니터링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 2. 지역의 환경문제 참여를 통한 환경의식 변화

5) 숲속학교를 진행하는 주민 E는 1998년부터 이 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의 하나인 ‘도토리 방과후’에서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공동육아교사 시절, 매일 아이들과 나들이를 다녔던 것이 풀과 꽃 이름을 ‘저절로’ 익히게 했다고 한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주부로 지내던 차에 성미산 운동을 계기로 숲속학교를 꾸리게 되었다.

성미산 지키기 운동에 대한 참여는 환경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면담과 질문지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성미산’이라는 특정 장소와 자연물에 대한 애착에서 그치지 않고 생태적 삶과 환경에 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고, 환경쟁점에 관한 인식 및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집단적 자신감을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 변화

앞서 기술한 주민들의 참여동기는 성미산에 대한 초기인식을 대변해 주는데 즉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서 쉼터이자 놀이터, 운동장소였다. 그런데 성미산에 배수지와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이에 대한 대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성미산은 ‘환경’과 ‘생태’로 위치 지워지게 되었다. 이는 ‘개발의 논리’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환경의 논리’를 택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실제 주민운동을 추진해 가면서 자연환경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환경문제의 해결 과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상수도 정책과 마포구의 녹지정책 등 관련 정책 자료들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발저지의 당위성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배수지 건설 계획과 수돗물 공급량 및 수요량을 조사하면서 성미산 배수지 건설이 물 수요에 대한 잘못된 예측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계획이고 예산 낭비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실적 필요에 의한 요구과정은 이전에는 그다지 관심 없었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했다.

### 나. 환경에 대한 가치와 태도 변화

‘나들이 장소’, ‘쉼터’, ‘산책로’, ‘놀이터’, ‘체육관’은 주민들이 성미산을 이용하는 맥락에서 붙여진 성미산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성미산 지키기에 참여했던 주민들 중에

〈표 3〉 참여로 인한 환경의식 변화<sup>6)</sup>

구분	'성미산 지키기 운동 참여'를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변화 없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태도	성미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커졌다.	0% (0/51)	0% (0/51)	2% (1/51)	33.3% (17/51)	64.7% (33/51)
	생태적 삶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0% (0/51)	0% (0/51)	2% (1/51)	27.5% (14/51)	70.6% (36/51)
참여	환경과 보존에 대한 생각을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0% (0/51)	0% (0/51)	5.9% (3/51)	33.3% (17/51)	60.8% (31/51)
	지역의 환경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0% (0/51)	0% (0/51)	0% (0/51)	31.4% (16/51)	68.6% (35/51)
행동	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실천을 생활화하게 되었다(재활용, 분리수거, 물 에너지 절약 등).	0% (0/51)	0% (0/51)	8% (4/50)	54% (27/50)	38% (19/50)
인식	성미산을 둘러싼 환경쟁점의 논리(개발과 보존)를 알게 되었다.	0% (0/51)	0% (0/51)	0% (0/51)	36% (18/50)	64% (32/50)
	인간의 개발행위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었다.	0% (0/51)	0% (0/51)	4% (2/50)	26% (13/50)	70% (35/50)

〈표 4〉 환경에 대한 인식, 태도, 참여기능의 변화<sup>7)</sup>

환경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인간은 함께 해야 할 생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li> <li>◆ 삶 전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삶은 인간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자연과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관계 맺으며 사는 것이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생태적으로 사는 모습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었다.</li> <li>◆ 아이들의 나들이 장소로서 성미산을 생각하다가 이러한 위기가 생김으로써 도시 속의 작은 산 지킴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실제로 산을 지켜냄으로써 주민의 힘을 알 수 있게 되었다.</li> <li>◆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 자연생태계와 개발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와 공부하는 기회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지역주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성미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다.</li> </ul>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수거, 재활용에 관심이 커졌고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다.</li> <li>♣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하게 되었다.</li> <li>♣ 성미산 뿐 아니고 지역 내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졌다.</li> <li>♣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은 즐길 수 있게 되었다.</li> </ul>
참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자발적인 발의, 실천, 참여가 생태적 삶의 기초가 되며, 나아가서 정책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됨을 보여 주었다.</li> <li>♠ 주민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li> </ul>

6) 질문지 조사는 2004년 5월 상암동 난지천 공원에서 열렸던 성미산 마을축제에서 이루어졌다. 회수된 65부의 질문지 중 51부가 성미산 지키기 운동 참여자들이었고, 14명은 성미산 지키기에 찬성하지만 시간 혹은 정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한 비참여자들이었다. 특히 '성미산 지키기 운동 참여에 의한 가장 의미있는 큰 변화'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44명 중 18명(40.9%)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를 꼽았고, '성미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커졌다'에 8명(18.2%), '성미산을 둘러싼 환경쟁점의 논리를 알게 되었다'에 5명(11.4%) 순이었다.

7) 〈표 4〉는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 귀하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든 생각하는가?' 라는 비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응답 중 환경의식과 관련한 내용을 분류했다. 질문지를 통해 알 수 없는 환경의식의 구체적 맥락은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는 과거와 달리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성미산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포산악회를 11년째 하고 있는 70세의 주민 L도 한 예이다. 성미산 지키기 운동의 초기였던 더운 여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서명을 받으러 마을을 다녔던 주민 L은 '건강을 다지기 위한 운동 장소를 잃고 싶지 않아서' 참여를 시작했다. 과거, 성미산에 전기를 끌어와 에어로빅장 등을 만든 '공로자'이기도 했던 주민 L이었으나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정에 참여하면서 '성미산을 '산' 그대로 지켜가야 하는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성미산의 운동기구들을 철거하고 사람들의 지나친 이용을 억제하는 보존 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

주민들의 환경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활동 중에는 '숲속학교', '성미산 가족캠프', '생태탐방', '환경강좌' 같은 '성미산 생태교실'이 있었다.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미산을 알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 먹을거리, 재활용 등을 소재로 이야기 하기도 하고, 쓰레기 매립지에 현장견학을 가는 가 하면,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 함께 야영을 하면서 성미산 체험을 즐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미산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느끼고 실감'하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성미산 속에서의 자연체험 과정은 성미산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몸으로 느끼게 했고, 꼭 지켜야겠다는 결의로 이끌어 주었다.

#### 다.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와 기능 변화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가 처음이었던 주민들은 비슷한 선행 사례에 대한 학습을 전략적으로 하면서 환경이슈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문제해결 기능을 얻게 되었다. 일례로 핵폐기물 설치를 둘러싸고 부안 주민들과 정부의 대치를 보면서 그러한 갈등의 원인이 '계획단계에서 공정한 전문가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성미산 주민들은 말했다. '뒤늦게 집행단계에서 찬반 갈등이 불거져 엄청난 국력 낭비, 사회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 과정

에서 주민들이 직접 느꼈던 바이기도 하다.

2003년 10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성산 배수지 공사유보 결정으로 인해 2년여에 걸친 성미산지키기 주민운동은 사실상 주민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로인해 주민참여에 대한 자신감은 더 커졌다. 사실 운동 초기만 하더라도 '관에서 하는 일은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싸운다고 성미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소극적인 주민들도 많았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러했다. 그래도 2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지역민들이 힘을 합치면 지킬 수 있을 꺼다' 하는 변화지점이 생겼고 결국 승리함으로써 자신감은 배가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성미산 개발 사례와 같은 '주민 없는 지방행정',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지방자치' 구도를 벗어나 지속적인 참여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지연'을 재조직화해 '마포연대'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마을 내 다른 현안과 구 행정에 대한 일상적 감시 및 연구로 주민 의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3. 환경문제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가. 환경을 매개로 한 유대감 강화

성미산에 배수지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성미산의 사라짐'을 뜻했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하에 주민들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특정 연령대와 성별의 국한됨 없이 30, 40대 주부와 남성들로부터 60, 70대 노년층과 어린이에 이르는 다양한 마을 주민들의 참여 마당이였다. 성미산이 매개가 되어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고 주민운동 과정에서 한 마을 주민이라는 연대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한 주민은 '우리가 성미산을 지키게 아니라 성미산이 우릴 키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성미산을 지키는 과정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정신적, 정서적 유대를 만들어 공동체의식과 주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표 5〉 공동체의식, 주민의식의 변화<sup>8)</sup>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을 통하여 지역주민간의 벽을 헐고 함께 숨결을 나누게 되었다. 지역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마음과 힘을 나누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li> <li>■ 태어나고 자란 동네이지만 특별한 자긍심이 없었다. 그런데 성미산 지키기를 통해 우리 동네에 대한(함께 사는 주민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이 커졌다.</li> <li>■ 공동체 의식 공유.</li> </ul>
주민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현안을 지역민이 풀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li> <li>① 주민참여 확대의 문제의식 확산.</li> <li>①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성과라 생각한다.</li> <li>① 의정활동이나 여론 형성 등 주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 향상, 실천력도 향상,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동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 교양, 정치 학습의 장이 되었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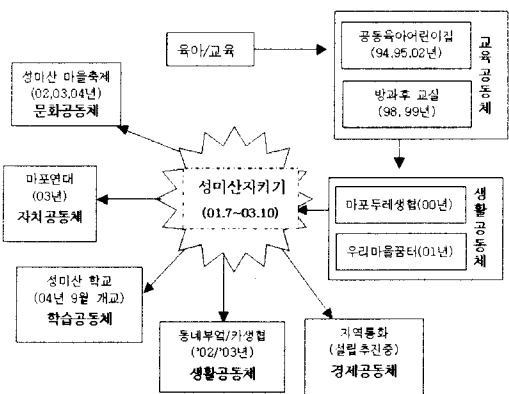
**나.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이 지역공동체형성에 끼친 영향**

공동체는 결코 특정 사건으로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현장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는 것은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림 1〉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연구지에서의 공동체 형성과정이다. 즉 94년 자녀들의 육아와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던 몇몇 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 육아 어린이집인 ‘우리 어린이집’이 연남동에 개원하게 되었다. 이후

같은 고민과 문제의식으로 대안을 찾아 이 지역으로 이사오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세 개의 공동 육아 어린이집과 두 개의 방과후 교실을 만들었고 150여 가구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국한되어 있던 육아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마을 속으로 확대해 가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부모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생활협동조합 즉 ‘마포두레생협’을 만들었다. 이것은 친환경 먹거리와 생활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이웃들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었고,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우리 마을 꿈터’ 건설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비가 비싼 공동육아와 일반 농산물에 비해 고가인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생협은 사실상 중류층 이상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으로서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성미산 지키기 운동은 모든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역내에 다양한 기관과 조직, 문화를 형성시켰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했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그 의미가 요약된다. 첫째, 남녀노소 및 계층을 망라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자의 전문성을 확인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점이 되었다. 이것은 모든 주민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 현안에 부딪혔을 때에도 조직적,



〈그림 1〉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8) 〈표 5〉는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 귀하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비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공동체의식과 주민의식에 관한 내용을 분류한 것이다. 이 때 공동체의식은 지역 및 구성원들에 대한 애착과 의존성, 연대의식이며, 주민의식은 주거공간에서 일어나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참여의식을 말한다(한국도시연구소, 1996).

능률적 체계를 갖게 되어 발빠르게 역할을 분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성미산을 매개로 하여 한마을 주민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참여적 주민의식이 고조되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대한 지역적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 IV. 논 의

본 연구에서 환경행태가 형식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에서 출발하지 않고, 학습자가 살아가는 지역의 환경문제와 갈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습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환경의식과 공동체의식, 주민의식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드러냈다. 성미산지킴이 운동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집단적 자신감과 역량을 마련한 지역주민들은 다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적이었다. 지금은 성미산지킴이 운동 이후 상암동의 난지도 개발이라는 또 다른 지역환경문제에 주민들의 참여가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지역환경문제 참여를 통한 환경행태의 학습과정 모식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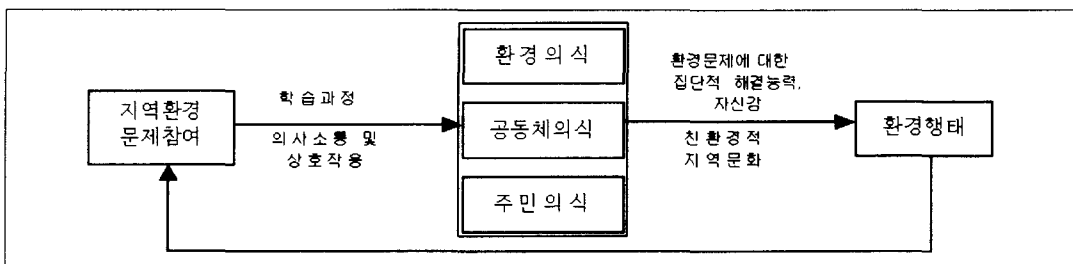
이때 지역환경문제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는 학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환경문제 참여는 학습과 실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이다. 중국의 속담에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게 되며, 행동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연구 참여자

들은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참여기능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 전에는 마을의 작은 산이 등산을 위한 하나의 코스였고 배경이었지만, 작은 산을 지키는데 참여하면서 그 대상물과 자신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깨달았다. 따라서 지역환경문제 참여는 그 자체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이자 동시에 환경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둘째,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지역의 환경문제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은 환경의식의 변화만이 아닌,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느끼게 했다. 연구현장에서도 성미산 배수지 건설과 아파트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모아가고 설득하기 위해 이웃의 문을 두드리면서 평소에는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웃’과 ‘마을’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이렇듯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정은 자연을 매개로 한 유대감과 관계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다. 그것은 지역사회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위협에 처하므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을 공동체로 재규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집단적 학습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때 주된 학습의 방법은 ‘대화와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민회의는 중요한 무형식 학습과정이며, 비판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확인해 협력체계를 만드는 학습 내



<그림 2> 지역환경문제참여를 통한 환경행태학습

트워크 형성과정이기도 하다(정근식, 1991; Clover, 1998; Forbes, 1987).

넷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로 가는 문화형성의 역량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지역환경문제에 참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주민들은 '집단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면서 지역 내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변화된 환경의식과 생성된 공동체의식, 주민의식은 '지역공동체'로 가는 기반이 되어 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안적 문화를 만드는 역량을 제공했다. 이처럼 지역의 환경문제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학습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참여는 것이 환경의식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역의 환경문제 참여는 환경의식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 학습과정이었다. 특히 개발과 보존이라는 환경쟁점을 인식하고, 환경정책에 관한 지식과 활용기능을 얻게 되었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의 증대와 참여기능의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지역의 환경문제참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체의식과 주민의식의 발로가 되었다. 성미산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는 성미산을 매개로 한 유대감을 강화시켰고,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과 집단적 자신감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지역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주민 자치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해결하려는 '참여의 문화'를 지역사회 안에 자리잡게 했다.

이에 근거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가 갖는 환경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표라 할 환경행태를 습득하는 하

나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실천의 통합이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 숙고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과 역할을 발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대안적 사회 및 문화 형성의 역량을 지역공동체 속에 마련하는 의미있는 과정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김종호 (2004). 성미산지킴이 운동과 새로운 지역공동체 실험, **환경과 생명, 봄호**. (사)환경과생명.
- 김진희 (2003). 지구화 맥락에서 본 시민운동단체 교육활동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은희 (2003). 자원봉사자의 학습과정과 관점 전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상준 (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원미사.
- 성미산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2003). **성산 배수지 제검토 요청 자료집: 대안방식을 통한 제검토 제안**.
- 정근식 (1991). 주민운동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유성 (1998). **새로운 교육문화 사회운동론**, 한울.
- 최석진, 김종욱, 신동희, 이재영 (2002).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추진전략 개발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2002년도 하반기 정기발표집**.
- 한국도시연구소 (1996).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발언.
- Clark, P. A. (1984). A challenge: A global definition of community education, *International Community Education Association Newsletter*, 6(1), 7-11.
- Clover, D. E. (1998). *The Nature of Transformation : Environmental, Adult and Edu-*

- cation*, Department of Adult Education, Ontario, Canada.
- Forbes, J. (1987). Environmental Education-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The Environmentalist*, 7(2), 131-142.
- Gill (1993). *Learning to learn: Toward a Philosophy of Education*, Humanities Press, New Jersey.
- Heimlich, J. E. (1993).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Toward a Working Definition*, ERIC. CSMEIE Information Bulletin.
- Maser, C. and Kirk, C. (1996). *Local Community Development*, In C. Maser, (ed.)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 Towards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pp. 167-200, Florida: St. Lucie Press.
- 기타 보도 자료  
문화일보 2003년 12월 11일.  
세계일보 2003년 12월 8일.  
조선일보 1997년 7월 12일.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2003년 7월 29일.  
MBC 심야스페셜, 성미산 사람들, 2004년 6월 14일, 15일.